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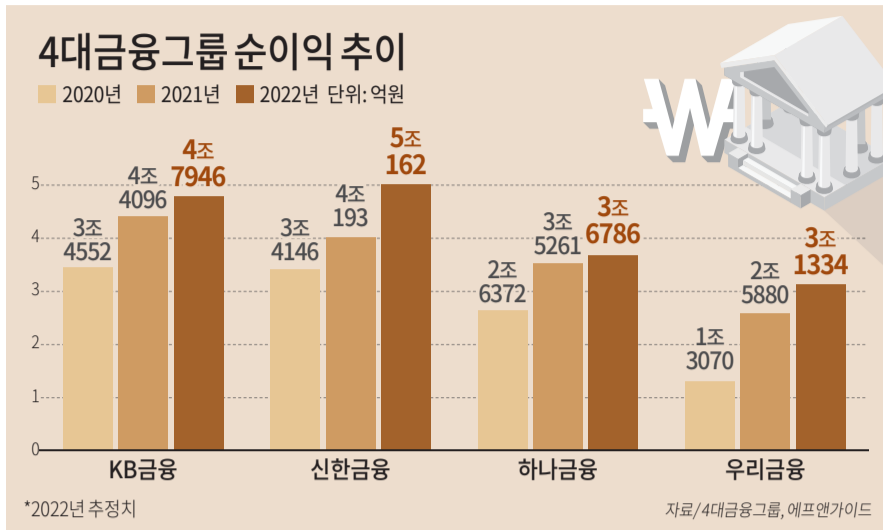
4대 금융지주 '역대급' 실적... 신한, 5조클럽 입성 '코앞'

이자급증에 연간순이익 17조 전망
지난해 순이익 대비 14.3% 증가
비은행 리스크 최소화, 대응과제

지난해 금리인상으로 시중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커지면서 4대 금융지주의 연간순이익도 17조원에 달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특히 신한금융그룹은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이 전년 한해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연간 순이익 5조원을 넘길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신한·하나·우리금융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순이익 전망치는 16조6228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순이익(14조5430억원)과 비교해 14.3% 증가한 수준이다.

◆ 신한금융 '순익 5조클럽' 입성하나
특히 신한금융의 지난해 순이익은 5조162억원으로 전년(4조193억원) 대비 24.8%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21년 신한금융은 순이익 4조193억원을 달성하며 4조 클럽에 입성했다. 1년 만에 1조원을 늘려 리딩뱅크를 탈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4분기 신한은행의 희망퇴직비용 2000억원과 신한투자증권의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관련 예상손실 1400억원이 추정돼 순이익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신한은행이 소호를 제외한 기업대출을 견조하게 늘리면서 NIM개선여력을 확보했고, 지난 3분기 신한투자증권의 사옥매각 이익이 버퍼역할해 견고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KB금융의 지난해 순이익 전망치는 4조7946억원으로 전년(4조4096억원) 대비 8.7% 증가했다. KB금융 또한 2020년 순이익은 3조4146억원, 2021년 4조193억원에 이어 최대실적을 갈아치울 전망이다.

하나금융과 우리금융도 지난해 순이익이 각각 3조6786억원, 3조1334억원으로 추정됐다. 다만 우리금융과의 차이는 5452억원으로 줄며 올해 3·4위 경쟁은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구경희 SK증권 연구원은 "2010년대

초반 건설, 해운, 조선 등 한계산업 구조조정 당시 우리금융지주는 타금융사에 비해 부실대출이 많이 늘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사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크다"며 "향후 가장 문제가 될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경우 우리금융은 약 2조5000억원(그룹 전체 신용 익스포저의 0.5%)으로 타금융사에 비해 신용위험이 높지 않아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2023년 성장세 둔화...은행 마진 ↓
·비은행 부실 ↑

다만 금리인상으로 가파르게 올랐던 금융사의 성장세는 올해 들어서는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주요 순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마진이 줄고, 비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되면서 수익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중은행의 경우 대출금리가 높아 예금금리를 인상하는 만큼 대출금리를 추가로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출금리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예금금리만 올리면 은행의 순이자마진(NIM)이 하락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은행은 정기에 금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서 은행은 극심한 NIM 축소를 경험한 바 있다.

아울러 비은행을 중심으로 부동산 PF 부실이 본격화되면 순이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말 비은행 PF 대출잔액은 109조8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넘어섰다. 지난 2018년에 비해 77% 증가한 수준이다. PF대출 연체율 또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다. 여전사의 연체율은 지난 2020년 말 0.2%에서 지난해 9월 0.9%로, 저축은행은 같은기간 1.2%에서 2.4%로 높아졌다.

김재우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은행들의 부동산PF는 우량자산을 중심으로 대출이 이뤄져 리스크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비은행부문은 리스크가 큰 자산이 많아 향후 손실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까지 비은행이 금융지주의 실적개선을 해왔다면, 앞으로는 비은행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향후 대응과제다"라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metroseoul.co.kr

우량 채권 인정받은 포스코... 美 20억달러 채권 발행 '역대 최대'

자금 조달·성장 투자 자원 확보
국내 기업 첫 美 달러화 공모채

포스코가 2023년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 채권 발행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포스코는 자금 경색으로 인한 부실 우려를 차단하고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체력을 비축하게 됐다.

포스코는 1월 9일(현지시간) 미국 달러화 채권 발행에 나서 3년 만기 7억달러, 5년 만기 10억달러, 10년 만기 3억달러 등 역대 최대 규모인 총 20억 달러 규모 3개 트랜치 글로벌 본드를 발행했다고 밝혔다. 금리는 글로벌 대형 투자자들의 안전자산에 대한 탄탄한 수요를 기반으로 미국채 3년물은 +190bps, 5년물은 +220bps, 10년물은 +250bps의



포항제철소 전경.

유리한 가산금리로 발행된다.

포스코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지난해 12월 15일(현지시간) 미국 연준의 기

준금리 50bps 인상 단행 직후 글로벌 시장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국내 기업의 미국 달러화 공모채로, 금융시장 변동

성이 매우 큰 상황에서 발행에 성공함으로써 글로벌 투자자들로부터 우량채권임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다.

포스코는 작년 7월 10억 미국 달러화 글로벌 본드를 성공적으로 발행한 바 있으며 이번 20억 달러 발행을 통해 국내 외화유동성 공급 및 대외신인도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특히 이번 포스코의 가산금리는 올해 해외 채권발행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의 벤치마킹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5일에 2012년 국내 회사채 발행 수요예측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3조 9700억원의 매수 주문을 받으며 원화 7000억원 무보증 공모 사채도 발행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언어이 원화 및 외화 채권발행에 성공함으로써 향후 추가 금리인상과 유동성 축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성장 투자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는 이번 채권발행에 앞서 지난 1월 3일부터 8일까지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지에서 70개 이상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On-Off Line) 로드쇼를 실시하여 글로벌 철강 투자 계획과 성장전략 및 포스코의 우수한 신용도를 적극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



CJ제일제당, 해외사업 확장에 이선호 실장 역할 '관심'

>> 1면 '승계작업 속도내는'서 계속

신상열 농심 상무, 초고속 승진

CJ제일제당은 올해 해외사업 확장과 FNT(식품·영양 기술) 사업부문에 집중한다. 이선호 실장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라면업계의 경우 농심과 삼양식품이 승계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신동원 농심 회장의 장남 신상열 구매 담당 상무는 2019년 평사원으로 입사한 뒤 초고속 승진했다. 식품 제조 기업에서 구매 담당은 산업 구조 전반을 이해하는 핵심 업무인만큼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이어받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

배적이다.

신상무는 1993년생으로 미국 컬럼비아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기업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뒤 2019년 농심에 입사해 경영기획팀에서 근무해왔다. 농심 창업주인 고 신준호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농심 주식 35만주 중 20만주를 상속받기도 했다. 현재 원자재 수급 및 협력업체 관리를 맡고 있다.

삼양식품의 오너 3세 전병우 이사는 2019년 해외사업본부 소속 부장으로 입사해 빠르게 내부 입지를 쌓았다. 그리고 지난 6월 이사회를 통해 삼양식품그룹 계열사 삼양에니의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삼양식품의 글로벌 브랜딩 구축 및 캐릭터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오뚜기에서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장남 함윤식 씨가 경영지원팀에서 과장으로 근무중이다. 재계는 함윤식 씨가 오뚜기 경영을 승계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하고 있는 오뚜기 지분율은 2.17% 수준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가와 환율이 올랐고, 내수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해나갈지 오너3세들의 경영 능력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며 "경영에 참여해 좋은 성적을 내면 리더십을 인정받아 승계를 앞당길 수 있지만, 그만큼 책임감이 막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LG엔솔 배터리, '머스탱 마하-E'에 탑재

(포드)

>> 1면 '배터리사, 해외 합작'서 계속

지난해 방한한 집팰리포드 최고경영자(CEO)는 LG에너지솔루션과 전기차 배터리 사업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또한 LG에너지솔루션은 또 포드에 배터리를 대규모로 공급해온 핵심 협력사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포드의 머스탱 마하-E엔 탑재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해 7월 포드 요청으로 폴란드 공장의 포드 공급 배터리를 확대하고자 폴란드 생산라인을 기존 대비 두 배로 증설할 계획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큰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배터리 공장을 계획에 맞춰 짓

는다고 무조건 수율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같은 기술과 배터리 소재를 가지고 배터리 공장에서 작업을 해도 만드는 사람이 다르고 완전한 자동화가 구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배터리 수율을 국내처럼 맞추기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배터리 공장들이 스마트팩토리를 적용하며 자동화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아직은 완전자동화의 꿈을 이루지는 못한 상황이다. 결국 SK온도 수율 안정화를 위한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폴란드 공장을 2017년 준공한 뒤 2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에 수율 안정화를 확보해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다. /허정원 기자 zelkova@